

세관부두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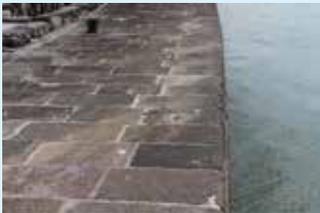


新北市立淡水古蹟博物館
Tamsui Historical Museum, New Taipei City



廣告

封面照片提供者：謝旺霖



석축

부두는 동쪽, 가운데, 서쪽 세 단락으로 구분한다. 동쪽 부두는 관음석(안산암), 자갈돌립을 배합하고 콘크리트, 석회, 모래, 진흙을 섞어 만든 삼합토 등을 혼합하여 쌓았다; 가운데 부분은 치리안암(사암)이다; 서쪽은 역시 관음석을 택하여 섬돌을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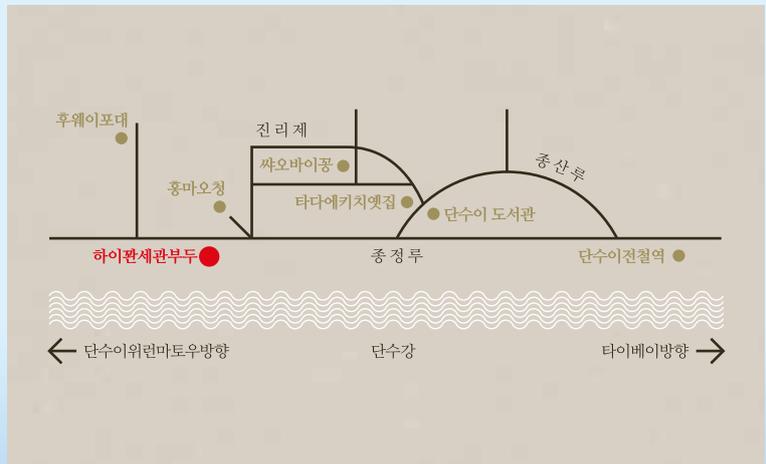
계선주(배를 매어 놓는 기둥)

제방에 돌로 만든 계선주를 설치하였는데, 외관은 사각기둥과 원기둥형으로 콘크리트 가운데 묻혀 있다. 직경 약 40cm, 높이 약 36cm이다.



선착장

내층은 콘크리트 구조이고, 표면은 돌로 되어 있으며, 디딤돌은 사각형의 돌덩어리를 사용하였으며, 접합되는 부분은 각도를 주어 견고성을 강화하였다. 콘크리트 기초면 아래에는 자갈을 매우고, 똑같이 말뚝을 박아서 하천 바닥 암반(岩盤)을 깊이 파고, 주 구조의 토대는 비스듬하게 하여 하천 바닥에 깊이 들어갔다.



교통정보 :

세관부두로 가려면 MRT 등과 바로 연결되거나 환승하여 단수이역에 내린 후에 홍26번이나 836번 공원버스를 타면 홍마오칭에 도착한다.

◆세관부두개항역사

서기1858년(함풍 8년), 청나라는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의 국가와 「넌징조약」을 체결하고, 대만에 통상항을 열었다. 1861년 7월(함풍 11년 6월)에 영국 부영사관 로버트 스윈호 (Robert Swinhoe) 가 통상 항구를 시찰하기 위해 대만에 와서 마지막에 후웨이를 조약에 의한 개항장으로 결정하였다. 1862년 7월 18일, 정식적으로 세관을 개관하였다. 1863년, 영국인 존 윌리엄 호웰 (John William Howell) 이 후웨이의 남세 초대 세무 책임을 맡으면서, 서양인이 대만 세관을 관할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중국의 「세관」은 1854년 (함풍 4년) 「신관(新關)」 (「洋關」) 과 「상관(常關)」 (「구관(舊關)」) 이란 명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자는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의 관세를 징수하였고, 후자는 나라 안의 교역 화물에 속하는 세금을 징수하였다. 「신관」은 국경의 관세를 징수하는 책임을 맡기 때문에 주로 교섭하는 대상이 외국인으로 「신관」에서는 각국 사무 관청 등 관리항을 기획하였다. 후웨이세관은 대만의 첫번째 외국 무역 관세를 관리하는 기구이며 아울러 이후에 설립된 지룡(雞籠), 안핑(安平), 다거우(打狗) 등 분관을 감독하였다. 후웨이세관은 전 대만을 관장하는 총 관리기구이다. 1916년 세관 본관청이 단수이로부터 이출하여 1921년에 지룡(基隆)에

전이하여, 원래 단수이 항을 분관으로 개설하여 「총독부세관 단수이 지부」라 이름을 변경하였다.

일본이 관장하던 단수이 세관부두는 1945년 중화민국정부가 관리하게 되었고 그 후에 해광예술단, 해양 순찰대 외 해군부대 海蛟四中隊, 해병대경찰 三營七連이 주둔하였다.

과거 세관부두는 국군이 사용하여 외부에 개방하지 않아 대중이 안의 모습을 엿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가끔은 해광예술단원들이 용수(榕樹)나무 아래 줄지어 서서 비파를 연습하는 것은 우연히 볼 수 있었다. 유명 예술인 선하이롱(沈海蓉)은 해군 소해광국가(小海光國家) 희극예술학교 제1기 졸업생이다.

신복시는 2006년 6월 27일 단수이 세관부두를 시의 고적으로 지정하여 신복시 정부 문화국이 관리하고 문화단지로 전환하였다. 4년의 보수공사를 거쳐서 당시 고적의 원형 그대로와 해안의 그윽하고 고요한 정경을 완전히 보전한 것을 제외하고도 부두는 단수이 석양을 조망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용수나무로 된 독과 연결되어 있는 교량은 사람들이 순조롭게 강가를 통해 세관부두로 갈 수 있게 하였고, 금빛 해안과 상점가의 색다른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다.

◆세관부두건설

단수이 세관부두는 관청구역, 관저구역, 부두구역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뉜다. 관청구역은 1869년에 건설되어 사무실, 선원 숙소, 창고 등으로 건축되어 있는데 지금 홍마오청 아래 주차장에 위치하지만 현재로서는 다시 볼 수 없다. 관저구역에는 1866-1875년의 기간에 계속해서 세무사관저와 숙소가 건설되었고, 전청나라 단수이세관 세무사(稅務司)관저는 그 가운데 유일한 것으로 단수이 거주민들은 「작은 백악관」이라 부른다. 1997년 고적으로 지정하였다. 부두지역의 건설은 청나라시기에 시작하여 줄곧 이어져 일제점령시기에 와서 부두의 공사가 완성되어 점차적으로 현재의 모습을 형성하였다.

■청나라시대

청나라시대, 후웨이항의 부두구역과 후웨이거리 뒷쪽(대략 더글라스양행 맞은편), 상선 정박 구역은 지금의 MRT 역 서쪽에서 줄곧 따라 가면 선착장과 후웨이 신관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1893년쯤에 후웨이 세관은 건립된 지 이미 30년의 시간이 되어 후웨이 신관 관청 전방 강가에는 점차적으로 선척이 정박할 때의 「물을 길어 올리는 것」 구조가 제공되었다. 이 곳은 관청과 사이를 두고 마주한 강가 지역으로 지금의 세관부두 구역의 주요한 범위가 된다.

■일제점령시기

일제점령 초기에 단수이 해안 부근의 부두는 이미 많은 곳에 돌출된 잔교형식의 「물을 길어 올리는 것」 과 배를 물에 대는 곳, 그리고 짐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든 하역장이 있다. 당시에 세관부두와 후웨이항(단수이 제1부두)의 사이에 큰 갯벌이 있었는데 1900년대에 이르러 갯벌 매립공사를 시작하여 단수이 강가는 점차적으로 변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이 시기의 후웨이신관 부두건설의 주요한 것은 제1검사장, 제2검사장과 제3검사장의 수면 매립과 부두 등의 공사이었다. 매립 후의 제2검사장은 원래 후웨이 신관 맞은편 물을 길어 올리는 것(汲水)과 후웨이 부두 간의 갯벌을 평평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완전한 부두의 범위가 되었다. 이 구역은 단수이 세관 관청과 영국 영사관의 부두 구역을 마주 대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은 세관부두(동쪽, 가운데, 서쪽)의 보존 범위 구역에 속한다. 세관부두 매립 공사 준공 후에 곧바로 건축물 몇 채를 증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창고, 숙소, 검사장 등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며 그 가운데 1동의 직사각형 창고는 아마 청나라시기에 남겨진 건물을 보수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세관부두 내부의 가장 일찍 지어진 건축의 하나이다.

■국민당정부시기

1945년 중화민국정부는 대만을 인수하여 단수이 세관과 세관부두를 군대가 관리하게 하였고, 철근콘크리트 숙소를 하나씩 증축하였으나, 일제점령시기에 사용하던 부두 창고는 그대로 보존하였다.



▲단수강



▲부두



▲창고 천장구조



▲양옥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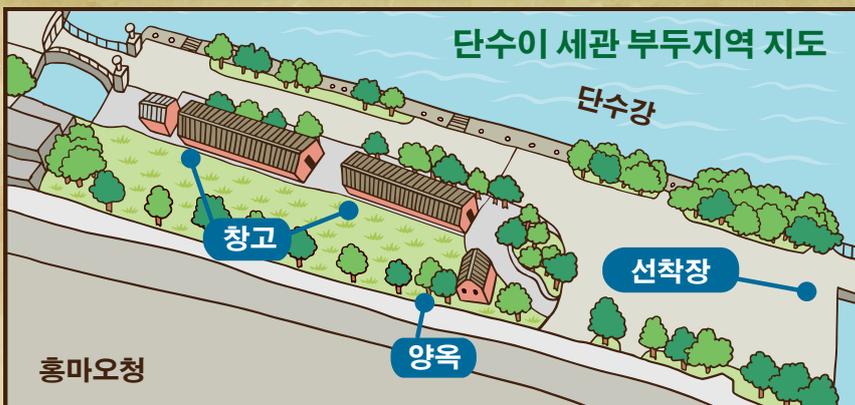
▲양옥



▲부두조망



▲중의지(忠義池)
해군해교사중대(海蛟四中隊)
주둔 시 설립



주소: 신북시 단수구 중정로 259 호

전화: 02-2623-1001

휴관시간: 매월 첫번째 월요일

(만약 국정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과 겹치면 하루를 연장합니다.)

★음력 설달 그믐, 초하루, 세관에서 별도로 공지한 시간.